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이북 프레임워크 도입 ... 교육출판 리더십, 이북 시장서도 이어갈 것

차별화된 e-book 콘텐츠로 ‘스마트 교육출판’ 시장 리드



교원그룹은 (주)교원과 (주)교원구몬, (주)교원 L&C, (주)교원여행, (주)교원하이퍼센트 등 5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2만여 명에 이르는 판매 전문 조직, 1만 3000여 명에 이르는 방문지도 교사 및 국내 최고 수준의 편집 전문인을 보유하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르는 교육, 생활문화, 여행, 레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교원은 전자책 사업에 새롭게 뛰어들면서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책 분야서도 고품질 콘텐츠 제공

(주)교원의 첫번째 전자책은 아이패드용 유아용 교육 콘텐츠인 ‘교원 이습극장’이다. 이습우화를 3D 애니메이션으로 제공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정서를 순화시키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교원 교육연구본부장인 한진웅 상무이사는 “교육출판 분야에서 (주)교원은 연 36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국내 최고의 기업이다. 높은

교원그룹(회장 장평순 www.kyowon.co.kr)은 1985년 교육출판 기업으로 시작해 생활건강, 레저, 호텔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초일류 교육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2015년 ‘1000만 고객, 3조 매출’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주)교원은 핵심사업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교원은 ‘전자책(e-book)’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이 분야에서도 교육출판분야의 리더십을 이어나가겠다고 자신한다.

| 글 · 김선애 기자 · iyamm@datanet.co.kr | | 사진 · 김구룡 기자 · photo@naver.com |



▲ 교원 꼬잉꼬잉 이습우화 시리즈 오프닝 화면

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통해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다”며 “전자책 사업 역시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해 ‘역시 교원’이라는

평가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교원 이습극장은 플래시를 이용해 단순한 동작이 반복되는 일반 전자책과 달리,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이용해 각각의 개체들이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게 했으며, 사용자가 등장인물과 배경을 조작할 수 있어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영어와 한국어로 제공돼 유아를 위한 영어학습 교재로도 손색이 없다. 등장인물과 배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 처럼 동작하며,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어 유아들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아이패드용 교원 이습극장은 39권으로 구성된 ‘꼬잉꼬잉 이습극장과 철학동화’ 전집과 10장의 DVD로 제작된 애니메이션(39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존의 애니메이션에 3D 렌더링을 가미하고, 아이패드 환경에 맞게 모빌리티 기능과 오락 기능을 강화했다.

한 상무는 “아이패드용 교원 이습극장은 애니메이션을 전자책화 한 수준을 넘어 아이패드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만든 것”이라며 “사용자와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오락적인 장치와 기능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술력· 창의성 높은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선택

교원 이습극장에는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의 ‘이북 프레임워크’가 적용됐다. 이 프레임워크는 책, 비디오,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추출해 각각의 콘텐츠를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관리된 콘텐츠들은 고객 맞춤형 UI 레이아웃 디자인에 따라,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에서 개발한 오브젝트 모션 모듈과 인터랙션 기능, XLM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러 가지의 콘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계속 활용(Multi Source Multi Use) 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관리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기업에서 자산화할 수 있다.

최근 모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바일 관련 솔루션과 프레임워크, 미들웨어가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그러나 완성도 높은 솔루션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의심되는 영세한 기업이 많다. 이에 비해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는 재정상태가 양호한 건실한 기업으로, 기술 뿐 아니라 콘텐츠 기획력이 탁월해 (주)교원이 추구하는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파트너로 평가됐다.

한 상무는 “2010년 스마트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모바일 솔루션 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그러나 창조적인 기획력과 높은 기술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았다”며 “아이온은 오랜 기간 금융, 통신권 등의 모바일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풍부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팀의 창의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이온과 호흡이 잘 맞았다고 평가했다. 콘텐츠를 갖고 있는 (주)교원과 기술을 갖고 있는 아이온이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 상무는 말했다.

한 상무는 “현재 2권과 3권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1권과 차별화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접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도 아이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모바일 러닝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초기 시장이며, (주)교원과 아이온 모두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이 시장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고품질 콘텐츠로 고객 만족도 높여

아이패드용 ‘교원 이습극장’은 애플 앱스토어 국내 교육 분야에서 다운로드 기준 1위, 매출 기준 1위를 달성했고, 현재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도서 분야의 앱 가격은 보통 0.99~1.99달러 수준이지만, ‘교원 이습극장’은 7.99달러로 다소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 수에서



“수준 높은 모바일 콘텐츠로 교육출판 사업 리더십 강화”

Q. 아이패드용 전자책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주)교원은 초일류 교육생활문화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데, 그 중 한 분야가 전자책이다. 전자책 시장은 태블릿 PC 전성기를 맞아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 콘텐츠 분야에서의 성장세가 매우 높다.

교육출판 전문 기업인 (주)교원은 그동안 쌓아온 고품질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덧붙여 모바일 콘텐츠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갖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아이패드용 전자책은 이를 위한 첫번째 시도이다.

Q. 경쟁사와의 차별점은.

지금까지 전자책은 플래시 기능을 이용해 기존에 출간된 도서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형태였다. 아이패드용 교원 이습극장은 3D 애니메이션 기법을 적용해 보다 다양한 교육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사용자들이 등장

인물이나 배경을 터치하면 각각 따로 동작하면서 인터랙션을 보여줄 수 있고, 게임 기능을 적용해 사용자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다.

Q. 아이온의 이북 프레임워크를 선택한 이유는.

아이패드용 교원 이습극장은 기존에 출간된 전자책과 전혀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기획력이 중요했는데, 아이온이 그런 면에서 매우 뛰어났다. 또한 금융, 통신권 등에서 모바일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해 온 경험이 있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됐다.

Q. 제품 출시 후 효과는.

아이패드용 교원 이습극장은 다른 제품에 비해 다소 가격이 높은 편이다. 교육 콘텐츠 앱의 개별 가격이 보통 0.99~1.99달러 사이인데, 교원 이습극장은 7.99달러이다. 사용자



한진웅 | (주)교원 교육연구본부장/상무이사

들은 가격이 비싸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이 전자책 분야에서도 리더십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됐다.

Q. 향후 계획은.

현재 아이패드용 꼬잉꼬잉 이습우화 2, 3권을 제작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전자책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작할 것이다. 방문교사들이 활용하는 교재 역시 스마트 패드를 활용토록 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콘텐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주)교원은 자신하고 있다.

한 상무는 “처음 전자책을 기획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다. 1000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단순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인가, 가격은 높지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것인가 선택하기 어려웠다. 교원 독자들이 선택하는 도서를 분석해 보면, 가격과 상관없이 좋은 책을 구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격이 높아도 좋은 품질의 전자책이라면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원 이습극장’ 앱스토어 매출과 다운로드 수 1위를 달성, 고품질·고가 정책이 성공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계사관이나 체협단의 직접적인 평가를 통해 살펴봐도 고객은 콘텐츠의 품질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교원은 전자책 사업과 기존 전집 도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전집도서와 전자책을 함께 활용해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나아가 이를 방문 학습 사업에도 적용해 방문교사들이 아이패드를 이용해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장기적인 계획도 갖고 있다.

한 상무는 “태블릿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는 교육, 주부,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을 갖는다. 모바일 콘텐츠 때문에 태블릿이 판매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교원이 갖고 있는 고객 기반과 높은 수준의 콘텐츠, 그리고 아이온의 기술력과 기획력을 바탕으로 모바일 교육 콘텐츠 시장에서도 리더십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NT**